

조흥화학, 작아도 현금 동원력 최고

2002년 상장기업 유동비율 증가추세 ... 세원화성-한국포리올도 우수

상장기업들이 보유한 현금 및 단기금융 상품규모가 3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유동비율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동비율 상위 20개 기업 중 중·소규모의 제약, 화학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주목된다.

증권거래소가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비교가 가능한 452개 기업의 사업보고서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2002년 상장기업의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보유액이 모두 30조12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화, 타인발행 수표, 통화대용 증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을 포함한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14조6536억원으로 전년대비 26.11% 증가했고 단기금융상품은 15조4674억원으로 28.99% 늘었다.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 규모는 127조1255억원으로 전년대비 7.51% 증가했다.

상장기업들의 현금 동원력이 커짐에 따라 단기채무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도 2001년보다 4.80%p 증가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96.04%를 기록했다. 유동비율은 2000년 79.78%, 2001년 91.24%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들이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부채를 줄여나가는 재무 안정성에 노력해 유동비율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유동비율 상위법인(2002)

(단위: 100만원, %)

회사명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비율	회사명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비율
삼성제약	41,176	3,556	1,158.06	한국전기초자	454,880	90,453	502.89
디씨엠	32,029	3,952	810.50	신도리코	374,470	81,083	461.84
조흥화학	54,880	7,993	686.58	삼영무역	48,277	10,641	453.70
휴넥스	21,999	3,297	667.30	대덕전자	259,237	57,486	450.95
환인제약	48,560	7,786	623.66	계양전기	78,769	17,668	445.83
일성신약	83,195	13,675	608.38	한국포리올	142,064	32,228	440.81
세원화성	41,696	6,869	607.00	세양산업	12,284	2,833	433.63
대원제약	39,854	6,569	606.69	고려제강	103,737	24,317	426.60
삼진제약	48,454	8,989	539.01	대덕GDS	136,349	32,326	421.80
동아타이어	135,052	26,402	511.52	캠브리지	54,748	13,045	419.69

유동비율 상위법인에는 삼성제약, 환인제약, 일성신약, 대원제약, 삼진제약 등 제약 관련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또 유기화학과 식품관련기업인 조흥화학, 불포화 Polyester 수지와 폴리우레탄 폼 등을 생산하는 세원화성 등이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686.58%, 607.00%의 높은 유동비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기초자는 유동자산 454억8000만원에 유동부채는 90억4530만원으로 집계돼 유동비율이 502.89%를 기록했으며, Polyether Polyol과 PU Resin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한국포리올의 유동비율도 440.81%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상장기업들의 유동부채는 132조3664억원으로 2.13% 늘었지만 고정부채 9조8748억원을 상환함으로써 전체 부채는 3.01% 감소한 229조118억원이었다.

유동자산 중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증가에 힘입어 당좌자산은 11.71% 증가한 99조6395억원에 달한 반면, 재고자산은 27조4861억원으로 5.39% 감소했다. 또 고정자산은 315조8758억원으로 1.38% 감소했지만 영업권, 산업재산권 등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있는 무형자산은 16.43% 증가한 8조8029억원을 기록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4/07>